

# 공단, 위기극복 위한 제2차립 선언

## - 간부직위 11% 폐지, 52명 무보직 재공모 -



공단은 지난 8월 23일 부임한 김광재 이사장은 “잘못된 관행과 문제의식 부재, 무사안일 등을 스스로 뒤우쳐 다시는 이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전 임직원들이 새롭게 역량을 결집해 위기를 극복하자”며 ①운영을 고려했던 건설계획 ②과잉시설 없는 경제설계 ③재해 안전시공 ④수익창출로 재무건전성 확보 ⑤KR위기 극복! 창의 혁신 ⑥청렴과 신뢰로 공생발전 등 6대 슬로건을 새로운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그 동안 잘못된 업무수행으로 문제를 일으킨 직원들이 사레별로 자신의 과오를 자백하는 자성의 시간을 갖고 분야별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극복의 시간’과 전 임직원이 새로운 경영방침 생활화를 결의하는 ‘희망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앞서 공단은 이미 부장 이상 간부의 11.3%인 28개 직위를 폐지·통합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차장 이상 전 직원에게 희망하는 간부직위에 대해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해 선임하는 ‘全 간부직 공모제’를 실시하는 인사혁신을 단행하여 간부 52개 직위에 대하여 보직자를 결정하지 않고 재공모토록 하였으며, 직위 부적합자와 능력미흡자 등에 대해서는 무보직으로 발령을 내고 하위직 능력자를 승진발탁할 예정이다. 통폐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위별 초과현원과 무보직자에 대해서는 신규 역세권개발·복합환승터미널 개발과 잉여시설 임대사업 개발업무 등에 투입해 수익인 발굴 미션을 수행하게 하거나 창의혁신 연구조직을 구성해 현안해결 및 공단발전 방안과제를 수행하게 할 방침이다. 미션을 충실히 이행해 공단발전이나 경영위기 극복에 기여할 경우에는 실적을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단은 신입 이사장의 경영방침과 이날 행사를 통해 표출된 임직원의 새 출발 의지를 담아 비전과 전략을 수립 중에 있으며, 11월 중 전 임직원 워크숍을 거쳐 연내에 새로운 희망의 “KR 2020 글로벌 경영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 5일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본사 및 지역본부의 본부장, 처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진 워크숍을 개최하고 새로운 2020 글로벌 경영전략을 수립하였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1일 제2의 창립을 선언한 후 ‘글로벌 Top 5 철도강국 실현’을 새 비전으로 정한 공단은 이날 워크숍에서 2020년까지 철도연장 5,000km, 노후 및 안전시설물 개량률 80% 실현을 위해 총 91조원을 투입하는 한편, 철도자산 및 해외사업 수익의 7천억원, 안전사고 ‘0’(零) 등 5대 전략 목표를 세우고, 본부별 전략 과제와 주요현안 과제 등을 설정할 계획이다.

특히, 금번 워크숍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선로전환기·분기 장애문제, 철도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설계·건설, 3년간

# ‘수익 7천억원, 안전사고 제로’ 경영전략 확정

## - 공단 2020 글로벌 경영전략수립 경영진 워크숍 개최 -

공단은 지난 5일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본사 및 지역본부의 본부장, 처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진 워크숍을 개최하고 새로운 2020 글로벌 경영전략을 수립하였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1일 제2의 창립을 선언한 후 ‘글로벌 Top 5 철도강국 실현’을 새 비전으로 정한 공단은 이날 워크숍에서 2020년까지 철도연장 5,000km, 노후 및 안전시설물 개량률 80% 실현을 위해 총 91조원을 투입하는 한편, 철도자산 및 해외사업 수익의 7천억원, 안전사고 ‘0’(零) 등 5대 전략 목표를 세우고, 본부별 전략 과제와 주요현안 과제 등을 설정할 계획이다.

특히, 금번 워크숍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선로전환기·분기 장애문제, 철도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설계·건설, 3년간



# 철도문학상 시상 및 철도문화유산 세미나 개최

## - 철도문화의 잠재적 가치와 문화적 콘텐츠 발굴 -

공단은 한국철도문화재단(이사장 김동건)과 공동으로 지난 10월 26일 공단 3층 대회의실에서 제3회 철도문학상 시상식을 갖고, 단편소설 등 5개 분야 당선자 20명에 대한 표창과 상금을 전달하였다. 또한 철도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국철도협회(회장 김광재), 한국철도공사(사장 허준영),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이 후원 이날 시상식에서 이신재씨(단편소설)가 일반부에서 국도부장관 유산의 보존 제도가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또 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중고등부에서는 김기운 군이, 초등부에서는 김현준군이 최우수 등급으로 각각 협회장상과 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철도문화유산 활용방안 및 철도기차 증대방안’, ‘철도문화유산 지정·발굴·복원 및 보존계획 마련’ 등 철도문화 진흥을 촉진하여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철도의 장점에 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 계시판

## 금주의 주요뉴스 (10. 24 ~ 11. 3)

- 한국철도시설공단, 내팔 철도사업 연이어 수주(서울경제 10. 24)
- 철도공단, 2급이상 간부직위 28개 폐지, 간부직 11% 감축(서울신문, 한국일보, 서울경제,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금강일보, 중앙일보, 충청일보 10. 25)
- 소래철교 개방 갈등 확산(한국일보, 조선일보, 중부일보, 경기신문 10. 25)
- 원주~강릉 복선전철 중차역 선정결과 27일 발표(강원일보 10. 25)
- 지하 444m 역은 과물이다(중앙일보 10. 26)
- 울산 2031년까지 '녹색교통 신도시' 만든다(경상일보 10. 26)
- 산상통역 '강릉역' 선정유력(강원도민일보 10. 26)
- 전라선 복선전철 개통효과...호남경제권 신났다(한국경제 10. 27)
- 철도문학상 시상식(국민일보 10. 27)
- 소래철교 통해 소래포구 진입 싸고 철도시설공단-시흥시 신경전(강원일보 10. 27)
- 철도시설공 막무가내 조직개편 논란(충청투데이 10. 27)
- 철도문학상 시상식 국토부장관상에 이신재씨(대전일보 10. 27)
- 호남고속철 광주~목포 최종안 임박(광주매일, 남도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광주일보, 무등일보 10. 27)
- "고속철 등 철도 건설에 민자 적극 유치"(파이낸셜 10. 28)
- 신분당선 '강남~정자' 오늘 개통(한국경제, 한국일보 10. 28)
- 신분당선 연장 '미곡역' 신설(매일경제 10. 28)
- 노후 철도시설물 보수 1조2500억원 투입(파이낸셜 10. 28)
- 철도시설공단 '올해의 프로젝트' 대상(충청투데이, 금강 10. 28)
- 호남고속철 광주~목포간 신설이 바람직하다(광주 매일 10. 28)
- 신분당선 개통...파이낸셜 10. 29)
- 원주~강릉 전철 '중점'은 현 강릉역으로 확정(조선일보 10. 31)
- '성남~여주 복선전철' 원주 연장 청신호(동아일보 10. 31)
- "춘천~용산 69분 걸려요"(국민일보, 신아일보, 충청일보 10. 31)
- 교통연, 경부고속철도 완전개통 1주년 세미나(서울경제 10. 31)
- 동해남부선 동부산단지역 신설(국제신문 10. 31)
- 철도시설공단 '제2차립' 선언(한국일보, 충청투데이, 대전일보 11. 1)
- 수인선 안산시 구간 2km 지하화(조선일보 11. 1)
- 코레일, 불법 점유한 도로서 주차로 징수(국민일보 11. 1)
- 수인선 안산구간 지상부 공원화(인천일보 11. 1)
- 철도공 "경영위기 극복하자"(충청일보 11. 1)
- 승객 103만명... 개발 기대로 인구 증가(동아일보, 국민일보, 중앙일보 11. 2)
- 철도공단 역지충항식 '제 2 차립 선언식'(서울신문 11. 2)
- 철도공단 '제2차립 선언식'(충청투데이 11. 2)
- 호남고속철 내년 국비지원 '필름'(광남일보 11. 2)
- 철도시설공단, 진례~부산신항 전철 개통(파이낸셜 11. 3)
- 철도공단 개혁 출발부터 '임초'(중도일보 11. 3)

# 경춘선복선전철 '올해의 프로젝트 大賞' 수상

## - 집중투자와 효율적인 사업관리 성과 -



수도권본부(본부장 김영국)는 지난 10월 27일 경춘선복선전철사업이 제9회 '올해의 프로젝트 大賞(교통시설부문)'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사)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회장 김중신)가 주관하는 '올해의 프로젝트 大賞'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수 프로젝트경영활동 사례를 발굴해 산업계에 확산시키기 위한 상으로 공단은 2004년 특별상(경부고속철 1단계), 2007년 대상(초치원-대구 전철화)에 이어 올해 세번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大賞을 받은 '경춘선복선전철사업'은 '09년에 착공하여 9년이 지난 '08년 4월까지 공정율이 49%밖에 진척되지 않았으나,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집중투자와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통하여 불과 2년만인 '10년 12월 개통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프로젝트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았다.

특히 공단은 ERP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과 공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전직원의 절반에 가까운 617명이 PMP자격증을 보유한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공단은 명실상부한 국내최고의 사업관리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으며, 대·내외에 공단의 사업관리 역량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수도권본부 박범준 기자)

# 전철화된 부산신항배후철도 개통

## - 공단과 공사간 상생협력으로 안전하고 정밀한 철도시설물 완공 -



영남본부(본부장 정재우)는 부산신항선(삼랑진-부산 신항역간) 복선전철구간 중 진례역-부산신항역간 23km 전철화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일 소속장 주관하에 개통행사를 가졌다.

부산신항 배후철도는 2010년 말 非전철로 개통한 이후 그동안 디젤기관차로 화물을 운송하여 왔으나, 금번 전철화 사업완료로 부산권역 항만과 지역간의 전시기 관차 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전기관차차를 배정으로 간소하게 시행된 개통식에는 영남본부 직원과 철도공사 부산경남 본부장을 비롯한 철도공사 직원 및 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하여 개통을 축하 하였다.

정재우 본부장은 격려사에서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 개통하기 위하여 밤낮 없이 작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의 사고 없이 훌륭한 시설을 완공한 시공사 관계자들은 물론,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 열차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단선운행 등의 조치로 협조를 아끼지 않은 철도공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 영남본부가 박차를 가하여 건설 중에 있는 다른 사업도 안전하고 정밀한 시공성과를 인계할 수 있도록 철도공사와 공단간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 및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강조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부산신항선의 복선전철화 완전개통에 따라 수출용 컨테이너 물동량 수송에 필요한 에너지 절감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공단의 자긍심을 도한번 고취시켰다.

(영남본부 박윤철 기자)